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열의 간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박종실* · 정혜숙** · 김선미*** · 정경림****

I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인 학업열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학업열의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개인 내적 요인의 자아존중감과 환경적 요인 가운데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는 낮아지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자아존중감의 감소 정도가 클수록 학업열의의 감소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감소를 더디게 함으로써 학업열의 둔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덜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지양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전반기 시점까지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마음공간심리상담연구소 소장, shil706@hanmail.net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happiness6636@naver.com

***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hisunmi4444@naver.com

**** 국군간호사관학교 강사, 교신저자, ding1010@hanmail.net

투 고 일 / 2024. 6. 10.

심 사 일 / 2024. 9. 11.

심사완료일 / 2024. 9. 27.

I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의 학업문제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학업열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1차년도(중1)부터 4차년도(고1)의 4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학업열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발달궤적을 보였으며, 각각 유의한 개인차를 나타냈다. 둘째, 중학교 1학년 시점에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학업열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횡단적 관계에서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강요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크게 낮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을 더디게 감소시켜 학업열의의 감소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종단적 관계에서의 완전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학업열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초기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 중기와 후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및 상담현장과 부모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학업열의 향상을 위한 방안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강요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업열의, 잠재성장모형

I. 서 론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사적 발달에서 가장 급격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학업 수행 및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의 가치와 소속감을 경험한다(이원례, 한천우, 2022).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거나 또는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를 직접 디자인할 줄 알아야 하고(장복석, 윤소희, 2020),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자신의 학업에 몰입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원격 교육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학습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정신적인 탄력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인 학업열의이다(김선정, 김봉환, 2022; 정은주, 정혜영, 2021).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열정, 의미, 가치를 중요시하고 학업에 온전히 몰입하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강한 의지, 내적 탄력성을 포함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결과를 위해 자율적으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를 뜻한다(Fredericks et al., 2004). 즉 학업열의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만 특별하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신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학업열의가 높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학습하여 주어진 학습과제를 잘 완수(유선옥, 박혜영, 2016)하는 반면, 학업열의가 낮은 사람은 학습과 관련된 내용에 흥미가 없는 경향성을 보인다(Suárez-Orozco et al., 2009). 그리고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은 자신의 내적 자원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Martinez, Youssef-Margan, Chambel & Marques-Pinto, 2019),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알고 학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높으며(이미라, 전향신, 2020; Singh, Granville & Dika, 2002), 새롭고 좀 더 어려운 과제일지라도 도전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를 지닌다(조흥식, 2016). 뿐만 아니라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응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도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효진, 이소라, 2020). 이처럼 학업열의는 학습에 대한 단순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넘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정서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등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는 2022년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최상위권 수준인 반면, 자신감과 흥미는 OECD 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교육부, 2022)고 있는 청소년의 학업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업열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업열의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성취목표지향(조한익, 이현아, 2010), 학업적 자기효능감(유지원, 송윤희, 2013), 자아탄력성(이상민, 2012), 자아존중감(정은혜, 김현주, 손은령, 2021)과 같은 개인 내적요인과 부모 양육태도(임효진, 이소라, 2020), 부모·교사·또래지지(조수현 외, 2018), 교사의 자율성지지(조흥식, 2019), 교우관계(이상섭, 조흥식, 2015)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은 학업열의가 어떤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정문경, 2022).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끊임없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동기, 정서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이미라, 전향신, 2020). 부모유형과 관련하여 Skinner 등(2005)은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1985)을 토대로 한 동기모형을 적용하여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거부, 강요, 비밀관성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누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인 경우 학업열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이미라, 전향신, 2020; 정은혜 등, 2021),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열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계환, 2021; 임효진, 이소라, 2020). 또한 부모가 긍정적 양육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질 뿐 아니라 학업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녀가 학업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Grolnick, Ryan & Deci, 1991). 이렇듯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열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중 구조제공과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학업 효능감과 자율적 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업열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arkas & Grolnick, 2010).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 중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는 자율성 지지의 반대개념으로, 자녀의 심리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부모의 의지대로 자녀가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양육태도를 말한다(박영숙, 2022). 특히 청소년기에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발달적 전환을 이루고, 성인으로서 건강한 심리·사회적 기능을 영위하기 위해 자율성의 획득이 필요하고 보고되고 있다(Havinghurst, 1948). 청소년은 아동기처럼 자신의 부모를 절대적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하고자 한다(Smollar & Youniss, 1989). 따라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 효능감과 학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김명숙, 2019)에 미루어볼 때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즉 강요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자발적 동기나 열정, 나아가 학업열의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변인으로 자기 스스로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충만하게 발휘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적응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이하리, 이영선, 2015).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습자는 스스로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학업을 수행하므로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학업열의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지영, 정혜원, 2021; 임효진, 2021).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적인 학업동기 및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수, 김지연, 김미옥, 2018; 윤남정, 신나나, 2014). 반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인식할수록 학업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아란, 심석, 유진희, 김상하, 신성만, 2020).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무기력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힘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 여지가 있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속성으로 (Butler, Hokanson & Flynn, 1994), 자아존중감의 변화 가능성은 향후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김현순, 2014).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그 지속성의 효과가 매우 높아 안정적이고 변화가능성이 적은 특질로 알려져 있지만 (Harter, 1998), 후기 아동기에는 이른 사춘기의 시작과 형식적·조작적 사고의 발달이 있는 전환기적 시기로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이는 자아 개념이 완성되고 자율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지속되는 부모의 과잉통제, 간섭 및 과잉보호가 초기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소희, 이경희, 2016).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욕구를 무시하고 강요와 과잉 통제적 태도로 양육할 경우 초기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다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위축이 증가될 수 있다(전란영, 김희화, 2016). 더욱이 부모의 거부적이고 강요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문호경, 202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선미, 박종실, 정혜숙, 김영희, 2023). 따라서 자아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이 학업에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강화요인으로 학업 열의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업성취와 연관된 다양한 변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검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적 관계에서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종단적 관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의 학업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1차년도(중1)부터 4차년도(고1)의 4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학교 시기를 기점으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열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열의의 변화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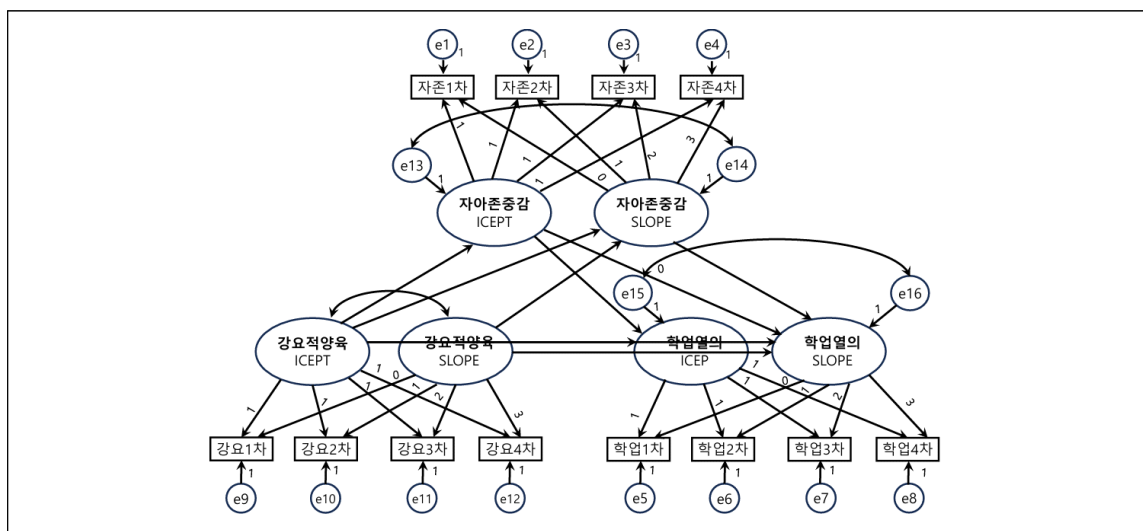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학업열의에 대한 초기연구에서는 학업열의를 고갈, 냉소, 무능감으로 특징 지워지는 학업소진이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였다(Maslach & Leiter, 1997). 그러나 긍정심리학의 태도와 함께 ‘열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열의는 소진의 일직선상 반대개념이 아닌 소진과 다른 특성을 가진 독립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정문경, 2022). Frederick 외(2004)와 Schaufeli 외(2002)가 학업열의에 대해 정의한 대표적인 학자로 이들이 정의한 학업열의를 정리해보면 대체적으로 학업에 대한 의미와 열정을 내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높은 수준의 학업 집중력과 회복력으로 학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내재적 동기로 요약해 볼 수 있다. Schaufeli(2002)는 학업열의의 구성요인으로 활기, 헌신, 몰입을 들었다. 활기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정신적 회복력을 말하며, 헌신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 가치와 도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몰두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학업에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 학생용 학업열의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면서 공부를 잘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효능감을 학업열의의 또 하나 구성요소로 추가하였다(이자영, 이상민, 2012).

학업열의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선행연구에서 학업열의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 양육태도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부모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그 자녀들은 학업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은경, 2020). 또한 부모의 긍정·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학업열의를 증진시키고 반면에 부모의 거부와 강요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열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영미, 2020). 중학생의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등의 양육환경 제공시 높은 학업열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선, 한세영, 2021).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학업열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김영희, 박은주, 신지은, 정혜숙, 2021). 양육태도에 대한 유형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며 각기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 중 Skinner 등(2005)은 자녀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녀의 내재적인 동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kinner 등(2005)은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핵심개념인 기본심리욕구(관계성, 자율성, 유능성)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따스함-거부, 자율성지지-강요, 구조제공-비일관성이라는 별개의 독립된 6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Skinner 등(2005)이 말한 부모유형의 이론적 토대가 된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 심리 욕구는 자율성에 있다.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는 자율성 지지의 반대개념으로 자녀의 심리적 요구 중 자율성을 저해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과잉통제하고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며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독재적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즉 강요적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요구나 필요에 응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며 부모의 의지대로 자녀가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양육태도를 말한다(박영숙, 2022). 이러한 강요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특정 방향이나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심리적인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처 방식을 가지게 한다(임성범, 2017;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독을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이미리, 2005). 부모의 애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Patterson, Cohn & Kao, 1989)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경수, 김화경, 2011; 이응택, 이은경, 2020). 이에 반해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또한 자신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애, 김가현, 2022; 한은지, 하문선, 2021). 또한 부모의 거부적이며 강요적인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이 자신에 대해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고(문호경, 2020), 또 다른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이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선미, 박종실, 정혜숙, 김영희, 20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중학생의 경우에도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강요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학업열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청소년의 인지, 정서, 행동 특성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지므로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학업과정을 수행하므로 잠재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열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지영, 정혜원, 2021; 임효진, 2021).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 및 학습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성희, 최은영, 2016). 학교급이 달라지는 중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향상한 학생일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임효진, 2021). 학습동기 관련 변인과 자아존중감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적인 학업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수, 김지연, 김미옥, 2018). 반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학업무기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란 외, 2020).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자아존중감이 학업 스트레스 및 무기력에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의 주요 내적자원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율성과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희화, 2009; 장휘숙, 2002; Noom, Dekovic & Meeus, 1999).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가 자율성 지지의 반대개념으로 자녀의 심리적 요구 중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학업열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가정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과정에 있어 연속적,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태도이므로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발달과제의 성취여부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받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변인의 관련성 관계는 종단적인 관찰을 통해 탐구되어야한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태도에 반해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적 양육태도의 영향을 시간적 흐름에 따른 종단 연구를 통해 규명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의 중1 패널 중 1차년도부터 4차년도의 4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대상으로 4년간 반복추적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결측치 없이 응답한 2,073명(남학생 1,112명(53.6%), 여학생 961명(46.4%))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학업열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자영과 이상민(2012)의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헌신, 활기, 효능감 및 몰두의 4개 하위요인이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열의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1차년도 .926, 2차년도 .922, 3차년도 .925, 4차년도 .914로 나타났다.

2) 독립변인: 강요적 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밀관성 6개 하위요인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요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4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강요적 양육태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1차년도 .774, 2차년도 .752, 3차년도 .794, 4차년도 .730으로 나타났다.

3) 매개변인 : 자아존중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의 10문항을 김지경 외(2010)가 수정·보완한 척도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정 차원의 5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의 신뢰도가 낮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9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1차년도 .887, 2차년도 .876, 3차년도 .863, 4차년도 .828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문항 및 신뢰도

변인		문항	신뢰도(Cronbach's α)			
			1차	2차	3차	4차
독립 변인	강요적 양육태도 (4)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774	.752	.794	.730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매개 변인	자아존중감 (9)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887	.876	.863	.828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종속 변인	현신 (4)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활기 (4)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공부를 잘한다.	.926	.922	.925	.914
	효능감 (4)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공부에 자신이 있다.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몰두 (4)	공부를 시작하면 폭 빠진다.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AMOS 22.0 Program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검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세 시점 이상의 측정된 수치를 통해 초기값(Intercept)과 변화율(Slope)을 추정하고, χ^2 , N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검증한다. 이때 NFI, TLI, CFI는 .90 이상(우종필, 2022), RMSEA는 .08 이하일 때(Browne & Cudeck, 1992) 양호하다고 간주되며, 매개효과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 method)을 통해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1차년도에서 4차년도에 이르는 동안 청소년이 지각한 강요적 양육태도는 2.07 ~ 2.17점, 자아존중감은 2.97 ~ 3.10점, 학업열의는 2.37 ~ 2.47점의 범위에서 값을 보였다. 주요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 기준 .01에서 .25이고, 첨도는 절대값 기준 .06에서 .52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Kline, 2015)을 모두 충족하였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N=2,073)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강요적 양육 1차(중1)	2.17	.66	.22	-.20
강요적 양육 2차(중2)	2.14	.61	.09	-.26
강요적 양육 3차(중3)	2.17	.65	.21	-.41
강요적 양육 4차(고1)	2.07	.57	.24	.10
자아존중감 1차(중1)	3.10	.56	-.25	-.21
자아존중감 2차(중2)	3.03	.49	.05	-.06
자아존중감 3차(중3)	3.01	.49	-.19	.52
자아존중감 4차(고1)	2.97	.47	-.03	.32
학업열의 1차(중1)	2.47	.55	.04	.37
학업열의 2차(중2)	2.45	.51	-.09	.46
학업열의 3차(중3)	2.39	.53	-.01	.19
학업열의 4차(고1)	2.40	.49	.03	.37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은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300 < r < -.090$), 학업열의($-.195 < r < -.046$)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 간($.085 < r < .454$)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N=2,073)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강요적 양육(중1)	-										
② 강요적 양육(중2)	.368***	-									
③ 강요적 양육(중3)	.233***	.309***	-								
④ 강요적 양육(고1)	.218***	.277***	.422***	-							
⑤ 자아존중감(중1)	-.296***	-.183***	-.105***	-.081**	-						
⑥ 자아존중감(중2)	-.200***	-.329***	-.191***	-.146***	.467***	-					
⑦ 자아존중감(중3)	-.140***	-.192***	-.218***	-.135***	.447***	.505***	-				
⑧ 자아존중감(고1)	-.090***	-.148***	-.153***	-.300***	.314***	.402***	.506***	-			
⑨ 학업열의(중1)	-.154***	-.129***	-.046**	-.054**	.454***	.254***	.228***	.157***	-		
⑩ 학업열의(중2)	-.125***	-.150***	-.069***	-.065***	.261***	.353***	.266***	.201***	.478***	-	
⑪ 학업열의(중3)	-.065**	-.092***	-.195***	-.090**	.188***	.238***	.311***	.085***	.371***	.494***	-
⑫ 학업열의(고1)	-.067**	-.066**	-.150***	-.125***	.148***	.183***	.229***	.325***	.300***	.401***	.488***

*** $p < .001$, ** $p < .01$

2. 변인들의 변화모형 검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각 변인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각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무변화모형은 변화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아 일관된 추이를 보이는 경우에 적합하며, 선형변화모형은 세 시점에서 선형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 등의 변화가 추정되는 경우에 적합하다(우종필, 2022). 1차년도에서 4차년도에 이르는 네 시점의 변화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열의 모두 무변화모형보다 선형변화모형에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나 각 변인의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4

변인들의 변화 모형 적합도

변인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강요적 양육	무변화모형	114.687	5	.000	.872	.893	.103
	선형변화모형	42.212	5	.000	.956	.964	.060
자아존중감	무변화모형	90.806	5	.000	.948	.957	.091
	선형변화모형	27.397	5	.000	.986	.989	.046
학업열의	무변화모형	117.969	5	.000	.927	.939	.104
	선형변화모형	34.965	5	.000	.981	.984	.054

3. 주요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형변화모형에 따른 각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추정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강요적 양육태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때의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이 2.180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의 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때의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정도에서 개인차가 유의미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변화하는 데 있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536으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시점에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강요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한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강요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정도가 더디게 감소함을 뜻한다.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3.090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의 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때의 자아존중감 정도에서 개인차가 존재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자아존중감이 변화하는 데 있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535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을 낮게 지각한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자아존중감에 대한 지각 정도가 더디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학업열의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업열의의 평균값이 2.470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의 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열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업열의 정도에서 개인차가 존재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학업열의가 변화하는 데 있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509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시점에 학업열의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학업열의를 낮게 지각한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학업열의에 대한 지각 정도가 더디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5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구분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과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
강요적 양육	2.180***	.179***	-.030***	.024***	-.023***	-.536***
자아존중감	3.090***	.157***	-.041***	.012***	-.023***	-.535***
학업열의	2.470***	.161***	-.026***	.015***	-.020***	-.509***

*** $p < .001$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매개효과검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모형 적합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NFI	CFI	RMSEA
최종모형	536.632	54	.000	.905	.913	.06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학업열의 간의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6과 같다. 먼저 초기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의 초기값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초기값($\beta = -.549$, $p < .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 시점에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학업열의 초기값($\beta=.690,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요적 양육태도의 초기값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beta=.145, p<.01$)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학업열의의 변화율($\beta=-.147, p<.05$)에는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점에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이 낮게 지각한 경우에 비해 이후 학년증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감소 정도가 큰 반면 학업열의의 감소정도는 작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학업열의의 변화율($\beta=-.203, p<.01$)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학년 증가에 따른 학업열의의 감소 정도가 작음을 의미한다. 즉,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동일 시점에 학업열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학업열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요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은 자아존중감 변화율($\beta=-.522, p<.001$)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데, 강요적 양육태도의 감소율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의 감소율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즉, 학년증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크게 낮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은 학업열의의 변화율($\beta=.746,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학년 증가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정도가 클수록 학업열의의 감소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잠재성장모형의 경로추정치

경로	B	β	S.E.	C.R.
강요적 양육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524	-.549	.038	-13.877***
강요적 양육 초기값 → 자아존중감 변화율	.042	.145	.016	2.730**
강요적 양육 변화율 → 자아존중감 변화율	-.402	-.522	.039	-10.373***
자아존중감 초기값 → 학업열의 초기값	.675	.690	.042	16.006***
자아존중감 초기값 → 학업열의 변화율	-.059	-.203	.020	-2.998**
자아존중감 변화율 → 학업열의 변화율	.709	.746	.093	7.602***
강요적 양육 초기값 → 학업열의 초기값	.045	.049	.042	1.079
강요적 양육 초기값 → 학업열의 변화율	-.041	-.147	.020	-2.079*
강요적 양육 변화율 → 학업열의 변화율	.075	.102	.057	1.304

*** $p<.001$, ** $p<.01$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강요적 양육태도의 초기값이 학업열의의 초기값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 = -.379, p < .01$) 및 총효과($\beta = -.330,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beta = .049, p > .05$)는 유의하지 않았고, 부트스트래핑의 하한값(LL)과 상한값(UL)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횡단적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강요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이 학업열의의 변화율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 = -.138, p < .01$) 및 총효과($\beta = -.382,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직접효과($\beta = -.201, p < .01$)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트스트래핑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강요적 양육태도의 변화율과 학업열의의 변화율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도 자아존중감 변화율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가 낮아지는데, 강요적 양육태도가 많이 감소할수록 자아존중감을 더디게 감소시켜 학업열의의 감소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년 증가에 따른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변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이를 매개함이 검증되었다.

표 8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효과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LLCI, ULCI)	총효과
강요적 양육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549**		-.549**
	→ 자아존중감 변화율	.145**		.145**
	→ 학업열의 초기값	.049	-.379** (-.413, -.291)	-.330**
	→ 학업열의 변화율	-.147*	.219** (.035, .093)	.072
강요적 양육 변화율	→ 자아존중감 변화율	-.522**		-.522**
	→ 학업열의 변화율	.102	-.390** (-.413, -.211)	-.287**
자아존중감 초기값	→ 학업열의 초기값	.690**		.690**
	→ 학업열의 변화율	-.203**		-.203**
자아존중감 변화율	→ 학업열의 변화율	.746**		.746**

** $p < .01$

* LLCI=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패널의 1차년도(중1)에서 4차년도(고1)의 4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 추이에 따른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열의의 변화궤적을 살펴보고,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학업열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변화궤적이 추정되었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간 추이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모두 감소함을 보여준 연구(조예진, 주혜원, 현명호, 2015)와 일관된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김영숙, 조한익, 2017), 비일관적 양육태도(김선미 외, 2024) 및 학대(안혜진, 2016)가 감소함을 보고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선미 외(2023)의 연구와는 이질적인 결과를 보여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강요적 양육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또래 및 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가 증가하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욕구가 강해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증가한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기는 혼란, 갈등, 스트레스 등 다양한 변화를 겪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신뢰롭게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주변의 유혹과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탈 및 적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존중해주는 한편,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관여와 관심을 갖고 훈육에 있어서 적절한 구조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변화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함을 확증한 연구(장성민, 2023)와 일관된 결과이며, 학년이 낮을 때보다 학년이 높을 때 자아존중감이 감소 되었다는 연구(이서연, 2022)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아동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가 초기 청소년기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다시 후기 청소년기로 가면서 자아존중감이 점차 상승한다고 보고한 연구(Robins & Trzesniewski, 2005)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서원석 외, 2022; 유창민, 2017)와는 이질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상반된 결과는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 및 사고능력의 발달과 대인관계의 확대,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정병삼, 2010)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를 통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데(박선희, 2014),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계인 친구, 교사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기 학생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작은 실패 경험에도 좌절감을 크게 인식하여 자신을 가치롭게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는 패배감을 느낄 수 있다(김희수, 2006).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 상 중학교에 비해 학업수준과 학업분량에 대한 압박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감소될 수 있다. 이는 학년 또는 학교급의 전환시점에 사회적 관계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청소년들이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업성취 저하와 같은 실패나 좌절 경험에도 자신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따뜻한 피드백과 인정을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낙관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부정정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열의가 감소하는 변화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생의 학업열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 연구(이자영, 2013)를 지지해준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열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장성민, 2023)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의 양과 난이도 또한 증가되면서 학업성취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기대는 낮아지고 학업 의욕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업열의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Schaufeli et al., 2002)임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 스스로 학업에 의미를 두지 못하며 학업과 관련된 즐거움이나 기쁨 등의 정서도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열의 감소는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점차 이후의 학업수행에도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어난 학업양과 높아지는 학습의 난이도로 인해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학업 중단 및 부적응과 이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 몰입과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학업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여 스스로 적절한 학업목표와 학습전략을 설정하여 학업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와 상담자들이 정서적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 1학년 시점에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연구(이서연, 2022), 부모의 과잉간섭(전란영, 김희화, 2016)과 강요적 양육태도(김선미 외, 2023)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여준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는 자신이 영향력 없고 무능한 존재라고 느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된다는 김아란 외(202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대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부모의 지나친 통제와 강요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계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이러한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이른 시기인 영유아기부터 장기간 지속 되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모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 그리고 갈등 관계를 자녀 아동기에 조기 개입하여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예방적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고 이후 학업열의가 더디게 감소하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자아존중감의 감소 정도가 작을수록 학업열의의 감소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학업에 임하여 자신의 잠재적인 학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신민정, 박경진, 2022)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의 정적 상관을 입증한 연구(남지영, 정혜원, 2021; 임효진, 2021)와 일관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적 학습동기(김성수, 김지연, 김미옥, 2018)가 높고 학업무기력은 낮아지며(황흠, 신태섭, 2021; De Raedt, Schacht, franck & De Houwer, 2006), 학업열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경희, 윤미선, 2021)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년 또는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늘어나는 학업부담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사회적 행동 선택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는 이러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교 및 학업수행과 관련된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해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요적 양육태도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초기값을 매개로 학업열의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을 낮추어 학업열의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이미라, 전향신, 2020; 임효진, 이소라, 2020)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시혜, 하문선, 2021)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Ruiz, Roosa & Gonzales(2002)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 부정적 정서 및 학교 부적응, 그리고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강요적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해 학업열의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높은 학업열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인정을 통해 청소년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강요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은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학업열의 변화율에 유의한 부정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점에 강요적 양육태도를 더 높게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열의의 감소를 촉진하여 학업열의의 감소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중학생의 학업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정문경(2022)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김현주, 홍상황, 2015), 청소년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송홍정, 강태석, 2020)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학업열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전 시점의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 인식이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이 인식하

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중학교 시기에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초기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 중기와 후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 현장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장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지향해야 할 부모의 양육태도와 경계해야 할 양육태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차이를 함께 살펴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각각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구조적 관계가 탐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별 차이를 다루지 못하였는데, 성별에 따라 학업열의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조주연, 김명소, 2013)를 고려했을 때 후속 연구에서는 다중집단분석을 통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을 자아존중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기 후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다소 높고 다른 발달적 특성을 보일 수 있어 대상을 달리하여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이질적인 결과를 보이는지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교육부 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평가 결과발표. 세종: 교육부
- 권은경 (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관련 변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1), 123-127. doi:10.14400/JDC.2020.18.11.123
- 김경수, 김화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 김명숙 (2019). 부모의 구제제공이 중학생 자녀의 자율적 동기와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율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3(1), 27-50. doi:10.17286/KJEP.2019.33.1.02
- 김선미, 박종실, 정혜숙, 김영희 (2023).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30(10), 309-337. doi:10.21509/KJYS.2023.10.30.10.309
- 김선미, 송현정, 황명구, 정혜숙 (2024).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31(3), 433-460. doi:10.21509/KJYS.2024.03.31.3.433
- 김선정, 김봉환 (2022). 중학생의 그릿(Grit)과 학업성취의 관계: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및 부모의 긍정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9(4), 75-100. doi:10.21509/KJYS.2022.04.29.4.75
- 김성수, 김지연, 김미옥 (2018). 자아존중감, 학업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99-117. doi:10.22251/jlcci.2018.18.9.99
- 김아란, 심석, 유진희, 김상하, 신성만 (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1-221.
- 김영숙, 조한익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1(3), 529-561. doi:10.17643/KJCE.2017.26.2.07
- 김영희, 박은주, 신지은, 정혜숙 (202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8(9), 141-169. doi:10.21509/KJYS.2021.09.28.9.141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riss-kr-ssl.eproxy.jj.ac.kr/link?id=M12337502>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PSCQ_KA) 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10.17286/KJEP.2017.31.1.06

- 김현순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3), 409-437. UCI:I410-ECN-0102-2015-300-000581715
- 김현주, 홍상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doi:10.20972/kjee.26.1.201503.413
- 김희수 (20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6(1), 109-132. UCI:G704-001385.2005.16.1.013
- 김희화 (2009). 청년 초기의 자율성과 적응 간의 관계 및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155-175. UCI:I410-ECN-0102-2009-330-020307685
- 남지영, 정혜원 (2021). 중학생의 친구 및 교사관계와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1279-1298. doi:10.22251/jlcci.2021.21.3.1279
- 문호경 (202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직렬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9, 25-43. doi:10.20993/jSSW.49.2
- 박경희, 윤미선 (2021).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 자녀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927-940. doi:10.22251/jlcci.2021.21.13.927
- 박선희 (2014).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지발달중재학회지**, 5(1), 17-34. UCI:G704-SER000003139.2014.5.1.006
- 박성희, 최은영 (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5, 53-83. UCI:I410-ECN-0102-2018-300-003917666
- 박영숙 (2022). 비행 경험 청소년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80, 55-79. <https://www-earticle-net-ssl.eproxy.jj.ac.kr/Article/A420287>
- 서원석, 이승배, 김석우 (2022). ARCL을 활용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종단연구. **교육혁신연구**, 32(1), 169-190. doi:10.21024/pnuedi.32.1.202203.169
- 신민정, 박경진 (202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12(2), 121-141. doi:10.35476/taca.2022.12.2.121
- 안혜진 (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종단연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475-493. doi:10.22251/jlcci.2016.16.12.475
- 우종필 (2023).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표본 크기와 정규성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41(1), 1-6. doi:10.36345/kacst.2023.41.1.001
- 유계환 (2021). 중학교 1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정서문제, 학업열의 사이의 구조적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30(4), 177-196. doi:10.17643/KJCE.2021.30.4.10

- 유선옥, 박혜영 (2016). 대학-학생 공중 관계, 대학생의 학업 열의, 학업 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PR 연구**, 20(3), 173-200. doi:10.15814/jpr.2016.20.3.173
- 유지원, 송윤희 (2013). 이러닝에서 학습자의 학습참여 및 학습지속의향에 대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91-112.
- 유창민 (2017). 청소년의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상호관계: 자기회귀표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5-31. doi:10.14816/sky.2017.28.4.5
- 윤남정, 신나나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가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3), 157-176. doi:10.5723/KJCS.2014.35.3.157
- 이미라, 전향신 (2020). 부모의 양육태도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doi:10.22251/jlcci.2020.20.14.779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UCI:G704-001385.2005.16.2.008
- 이서연 (202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4(3), 49-65. doi:10.19031/jkheea.2022.9.34.3.49
- 이시혜, 하문선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서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169-181. doi:10.22251/jlcci.2021.21.13.169
- 이원례, 한천우 (2022). 중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9), 53-81. doi:10.21509/KJYS.2022.09.29.9.53
- 이응택, 이은경 (2020). 부모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자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의 삶의 만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17(1), 127-146. doi:10.34244/JFOYS.2020.17.1.127
- 이자영 (2013). 학년에 따른 학업열의의 잠재평균 차이 검증, **청소년학연구**, 20(2), 1-21. UCI:I410-ECN-0102-2013-330-002497154
-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doi:10.17927/tkjems.2012.24.1.131
- 이정애, 김가현 (202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4), 209-227. doi:10.15709/hswr.2022.42.4.209

- 이하리, 이영선 (2015). 청소년의 교사·또래 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2), 467-486. doi:10.35151/kyci.2015.23.2.021
- 임성범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1), 68-105. doi:10.15709/hswr.2017.37.1.68
- 임효진 (2021). 그릿과 학업열의의 유형 및 자존감의 예측력. **교육학연구**, 59(1), 79-104. doi:10.30916/KERA.59.1.79
- 임효진, 이소라 (2020). 그릿 (Grit) 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교사,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31(1), 109-127. doi:10.20972/kjee.31.1.202003.109
- 장봉석, 윤소희 (2020). 청소년대상 파이썬(Python)활용 교육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2(2), 363-369. doi:10.14702/JPEE.2020.363
- 장성민 (202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및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관계: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방법연구**, 4, 647-670. doi:10.17927/tkjems.2023.35.4.647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UCI:G704-001838.2016.14.2.017
- 정문경 (202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803-819. doi:10.22251/jlcci.2022.22.6.803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UCI:G704-001385.2010.21.4.006
- 정소희, 이정희 (2016).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우울, 공격성,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 313-342. doi:10.16975/kjfs.2016..52.010
- 정은주, 정혜영 (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초등교육연구**, 34(3), 19-44. doi:10.29096/JEE.34.3.02
- 정은혜, 김현주, 손은령 (2021). 부모양육태도, 교사애착, 학업열의,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학년 변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8), 67-85. doi:10.22251/jlcci.2021.21.18.67

- 조수현, 이민영, 이장희, 이상민 (2018). 고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 직무요구-자원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3), 1-26. doi:10.29318/KER.24.3.1
-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2), 59-81. doi:10.14816/sky.2015.26.2.59
- 조주연, 김명소 (2013). 초등학생의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4), 477-497.
- 조한익, 이현아 (2010).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 131-154.
- 조흥식 (2019).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동료의 관계성 지지가 학생들의 그릿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학회지**, 28(1), 927-943. doi:10.35159/Kjss.2019.02.28.1.927
- 최영미 (2020). 부모의 긍부정적 양육태도, 교사애착,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915-936. doi:10.22251/jlcci.2020.20.23.9
- 최혜선, 한세영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중학생의 그릿,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 간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103-125.
- 한은지, 하문선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무기력 및 우울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4), 667-684. doi:10.22251/jlcci.2021.21.24.667
- 황흠, 신태섭 (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교사-학생 관계, 자존감 및 학업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42(1), 163-198. doi:10.18612/cnujes.2021.42.1.163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doi:10.1177/0049124192021002005
- Butler, A. C., Hokanson, J. E., & Flynn, H. A. (1994). A comparison of self-esteem lability and low trait self-esteem as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66. doi:10.1037/0022-3514.66.1.166
- Caron, M., Goethals, M., De Smedt, G., Berghmans, J., Vliegen, S., Van't Oost, E., & Van den Aarssen, A. (1999). Pressure dependence of the auto-ignition temperature of methane/air mixtures.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65(3), 233-244. doi:10.1016/S0304-3894(99)00004-7
- De Raedt, R., Schacht, R., Franck, E., & De Houwer, J. (2006). Self-esteem and depression revisited: Implicit positive self-esteem in depressed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7), 1017-1028. doi:10.1016/j.brat.2005.08.003

- Deci, E. L., and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pp.109-134. doi:10.1016/0092-6566(85)90023-6
- Farks, M. S., & Grolnick, W. S. (2010). Examining the components and concomitants of parental structure in the academic domain. *Motivation and Emotion*, 34, 266-279. doi:10.1007/s11031-010-9176-7
- Frede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 59-109. doi:10.3102/00346543074001059
- Grolnick, Ryan, & Deci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doi:10.1037/0022-0663.83.4.508
-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3.
- Havinghurst, R.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Co.
- Kline, P. (2015). *A handbook of test construction (psychology revivals): introduction to psychometric design*. Routledge. doi:10.4324/9781315695990
- Maslach, C., & Leiter, M. P. (1997). *The truth about burnout*. San Francisco: Jossey Bass.
- Noom, M. J., Deković, M., & Meeus, W. H.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6), 771-783. doi.org/10.1006/jado.1999.0269
- Patterson, C. J., Cohn, D. A., & Kao, B. T. (1989). Maternal warmth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risks associated with peer reje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21-38. doi:10.1017/S0954579400000225
-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158-162. doi:10.1111/j.0963-7214.2005.00353.x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doi:10.1037/t01038-000
- Ruiz, S. Y., Roosa, M. W., & Gonzales, N. A. (2002). Predictors of self-esteem for Mex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youths: A reexamination

- of the influence of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1), 70. doi:10.1037/0893-3200.16.1.70
- Schaufeli, W. B., Martinez, I. M., Pinto, A. M.,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doi:10.1177/00220222102033005003
-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ález-Romá, V., & Bakker, A. B. (2002).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71-92. doi:10.1023/A:1015630930326
- Singh, K., Granville, M., & Dika, S. (2002).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 Effects of motivation, interest, and academic enga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5(6), 323-332. doi:10.1080/00220670209596607
- Skinner, E., Johnson, S., and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doi:10.1207/s15327922par0502_3
- Smollar, J., & Youniss, J. (1989). Transformation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1), 71-84. doi:10.1177/016502548901200104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doi:10.1016/j.dr.2009.11.001
- Suárez-Orozco, C., Pimentel, A., & Martin, M. (2009). The significance of relationships: Academic engagement and achievement among newcomer immigrant youth. *Teachers college record*, 111(3), 712-749. doi:10.1177/016146810911100308

ABSTRACT

A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adolescents' self-esteem and academic engagement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Park, Jongshil* · Jeong, Hyesuk** · Kim, Sunmi*** · Jung, Kyungrim****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and academic engage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ademic problems of adolescents with high academic burden and stres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as basic data for improving adolescents' academic engagement. To this end,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as verified using four-year longitudinal data from the 1st year(1st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4th year(1st year of high schoo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adolescents' self-esteem, and academic engagement showed a development trajectory that decreased linearly over time, and each showed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Second, the higher the perceived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at the time of the 1st year of middle school, the lower the self-esteem, which indirectly decreased academic engagement, confirming the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cross-sectional relationship. Third, the lower the perception of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the slower the decrease in self-esteem, which in turn slowed the rate of decrease in academic engagement, verifying the complete mediation effect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parents'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can lower adolescents' self-esteem and further reduce academic engagement, and confirm that self-esteem is a very important factor that has a continuous and chronic effect on various areas not only in early adolescence but also in middle and late adolesc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lear and specific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adolescents' academic engagement and increase self-esteem are presented in schools, counseling sites, and parent education sites,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for follow-up research.

Key Words: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cademic engagement

* Mind Space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Director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Welfare, Lecturer

*** Cheongju Welfare Foundation, Researcher

****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Lecturer, Corresponding author